

Multicultural Acceptance of Natives and Self-concept and School Achievement of Migrant Adolescents in Korea

-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

Jin Bae Sul^{1#}, Eun Kook Lee²⁺, Ji Hae Kim³

¹ Institute of Public Affairs,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Korea

²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Korea

³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 Sungkyunkwan University, 25-2 Sungkyunkwan-ro, Jongno-gu, Seoul, Korea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Korean natives' multicultural acceptance on self-concept and school achievement among migrant background youth, using the five-year longitudinal data (2013-2017) from KELS 2013. It also examines the interaction effect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social support. The results show that: (i)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diversity) of natives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family self-concept but negative impact on the physical self-concept of migrant adolescents; (ii)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relationship)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migrant adolescents; (iii) social support plays significant roles in controlling the influence of natives' multicultural acceptance on migrant adolescents'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of continued policy efforts to improve the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and to expand the social support system for migrant adolescents in Korea.

Key words: migrant adolescent, multicultural acceptance, self-concept, social support, panel data model

1. 서론

최근 한국사회는 해외 이주민의 급격한 유입증가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2019년 3월 말 현재 귀화자를 제외한 장단기 국내 체류 외국인은 2,379,805명에 달

한다(Korea Immigration Service, 2019: 2). 또한 외국인 주민수도 지난 10여 년간 3배 이상 증가하여 총 인구 대비 3.6%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미성년 자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ereinafter MOIS, 2018).¹⁾ 특히 초·중등학교 학생의 경우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

The 1st author: Jin Bae Sul, Tel. +82-2-2123-3519, Fax. +82-2-2123-8118, e-mail. jbsul@yonsei.ac.kr

+ Corresponding author: Eun Kook Lee, Tel. +82-2-2123-2965, e-mail. eklee@yonsei.ac.kr

1) '2017 인구주택총조사(2017.11.1. 기준)'에 의하면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수는 1,861,084명(총인구 대비 3.6%)이며, 외국인주민의 미성년 자녀도 해마다 증가하여 222,455명에 이른다(MOIS, 2018).

소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8만 명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을 포함한 다문화학생은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여 2018년 기준 122,212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체 학생 대비 2.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9).

이렇듯 외국인 등 이주민의 증가는 비단 이들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선주민과의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지속적인 정책적 개입을 요구하는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제약, 그리고 주류사회의 편견 및 배제 등으로 인한 사회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이주배경 청소년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혼란을 경험하는 청소년기의 특성이 더해지면서 학교나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특히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또래집단과의 관계 형성의 장애로 인해, 부정적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에도 취약하며, 이는 사회 부적응과 주류사회의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연계되어 향후 사회적 위험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Sul, 2018a). 학교에서의 성취정도가 사회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Bates, *et. al.*, 2000; Ladd, *et. al.*, 1997),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주류사회의 인식이 이들 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적응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은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이들의 이중문화성은 초국가적 정체성을 포용하게 되어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 전체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부적응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고 학교생활의 적응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학교적응 및 학업

성취 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는 주류사회의 다문화 환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Berry(1997)가 지적한 것처럼 이주민의 적응은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주류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선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나 인식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학교적응, 나아가 사회적응 제고 및 사회통합을 위한 보다 타당성 있는 정책 및 교육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맥락에서의 관련 연구는 소수집단으로서의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아인식 및 적응에 대한 연구(Jang & Chun, 2013; Ko & Lee, 2014; Park, 2009; Park & Lee, 2010; Ryu, *et. al.*, 2016; Youn & Kim, 2017)와 주류사회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연구(Ahn, *et. al.*, 2012; Kim & Hwang, 2012; Lee, *et. al.*, 2013; Lee, *et. al.*, 2017; Yang, 2009; Yoon, 2016; Yoon & Song, 2011)가 각각 별도로 이루어져왔다. 예외적으로 최근 다문화 수용성 및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이주배경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Sul, 2018a; Sul & Kim, 2017), 주류사회의 다문화 환경과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아관련 인식 및 적응을 함께 고려한 실증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으로서의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학교적응의 주요 지표인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이러한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중단분석을 통해, 이주민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가?

II.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의 검토

1.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학업성취

자아개념(self-concept)이란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이나 관념 및 태도의 독특한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개념이 다차원적이라는 데는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Marsh, *et. al.*, 1991; Shavelson, *et. al.*, 1976; Song & Lee, 2005; Van Den Bergh & Rycke, 2003), 대체로 일반적 자아개념(global self-concept)과 영역-특정적 자아개념(domain specific self-concept)으로 구분하여 사용 된다(Harter, 2006: 509).

예를 들어 Shavelson, *et. al.*(1976)은 자아개념이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반 자아개념을 정점으로 자아개념을 학업, 사회, 신체, 정서적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Shavelson, *et. al.*, 1976). 또한, Song & Lee(2005)도 자아개념의 위계적·다면적 특성을 주장하면서, 일반 자아개념을 상위에 두고 학문분야와 비학문분야(중요 타인 및 정의)의 자아개념으로 나누고, 다시 그 아래에 하위 자아개념을 두는 다층적인 자아개념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에서는 청소년의 자아개념을 “자신에 대한 의견, 태도, 가치관, 감정 등 복합적인 지각의 총체”로 정의하고 학업, 외모, 대인관계, 성격 측면의 측정문항을 제시하였으며(S. Y. Kim, *et. al.*, 2006),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도 청소년의 자아개념을 “특정 환경 내에서 자신의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자신에 대한 평가적 태도와 신념의 정도”로 정의하고, 사회, 가족, 신체, 학업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Hyun, *et. al.*, 2005; Y. B. Kim, *et. al.*, 2006).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하나의 객체(object)로서의 자신에 대한 견해로, 총체적 관점에서의 자신에 대한 인식과 평가이며, 또한 구체적 영역에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EDI가 한국 청소년의 실정에 맞게 개발한 자아개념 검사 도구를 원용하여, 청소년의 자아개념을 다차원적 관점에서 사회, 가족, 신체, 학업 영역으로 구분하여 개념화하고자 한다. 즉, 구체적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식 및 평가하고 개념화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영역 특정적 자아개념이다(Lennon, 2010: 93). 먼저, 사회적 자아개념(social self-concept)은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된 자신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인식과 평가적 태도를 의미한다(Byrne & Shavelson, 1996: 601). 사회적 자아개념이 높다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 자아개념(family self-concept)은 가족환경 속에서 자신과 가족들 간의 상호작용과 경험에 의해 가정과 가족에 대해 형성된 자신에 대한 인식과 평가라 할 수 있다(Kim, *et. al.*, 2006: 97). 한편 신체적 자아개념(physical self-concept)은 자신의 외모나 운동능력 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신체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적 외모나 신체적 능력에 대해 만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 자아개념(academic self-concept)은 자신의 학업 능력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 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학업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자신의 학업 능력에 대한 우월감을 느끼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자아개념, 특히 학업 자아개념은 학교적응의 주요한 지표인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Kim, 1997; Marsh, 1990; Rosenberg, 1985). 이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발달이 학업성취를 높게 함을 의미한다(Ryu, *et. al.*, 2016; Oh & Kim, 2015). 따라서 자신에 대해 신뢰를 갖고 능력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발달시키는 경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보다 나은 학업성취를 이루지만, 스스로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으면 부정적 자아개념을 발달시키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은 학교나 사회에 부적응적인 행동을 발달시키고

학업에 흥미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이주배경 청소년²⁾의 경우, 차별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집단따돌림이나 학교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긍정적 자아개념이나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 수준이 낮다(Jang & Chun, 2013; Ministry of Education, 2017; Park, 2009; Park & Lee, 2011; Youn & Kim, 2017). 그동안 지표의 꾸준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준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은 1.17%로, 전체학생(0.87%)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인 점은 이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0.99%)에 비해 중학교(1.47%)와 고등학교(2.11%)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율이 높으며, 부적응과 관련한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 0.15%, 중학교 0.52%, 고등학교 1.37%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다문화 중·고등학생의 부적응에 의한 학업중단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향후 중·고등학교 다문화학생 비율이 증가할 경우 전체 학생 대비 학업중단율의 편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9).

2. 환경으로서의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multicultural acceptance)은 다문화 또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개념으로, 학자에 따라 간문화 유능성(Lynch, 1992), 간문화 적응성(Kelly & Meyers, 1995), 문화간 감수성(Chen & Starosta, 2000; Hammer, *et. al.*, 2003), 다문화 유능성(Sercu, 2004)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as cited in Min, *et. al.*, 2012; Jin & Park, 2018).

일반적으로는 다문화수용성이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여러 인종 및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이르는 것으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

지하는 태도”를 말한다(Sul & Kim, 2017; Yoon & Song, 2011). 그러나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회변동을 포함하는 것이며, 타인종, 타문화에 대한 태도는 그 사회의 인구구성이나 역사적 배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Hwang, 2010). 따라서 다문화수용성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Lee, *et. al.*, 2016; Min, *et. al.*, 2012; Sul & Kim, 2017).

국내 연구의 경우, 연구자에 따라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Kim, 2007; Lee, *et. al.*, 2010; Hwang, *et. al.*, 2007)이나 종족배제주의와 태도(Yang, 2009), 다문화지향성에 대한 태도(Yoon & Song, 2011; Sul, 2018a; Sul & Kim, 2017)나 보편적 권리 수용(Hwang, 2010) 등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다문화수용성은 주로 다양성(diversity)과 관계성(relationship), 그리고 보편성(universality)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Ahn, *et. al.*, 2012; Min, *et. al.*, 2010; Yoon & Song, 2011). 즉, 다문화수용성은 출신지역이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별이 없이 세계시민으로서의 보편적 가치에 따라, 자신과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을 동등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수용하며,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을 선주민들이 “자신과 다른 문화에 대해 부정적 느낌을 갖지 않고,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다양한 인종·문화·종교적 배경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정의하고자 한다(Sul, 2018: 312).

이러한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은 이주민의 자기관련 인식 및 사회적응의 중요한 환경요인이다(Berry, 1997; Sul, 2018). Berry(1997)에 의하면, 이주민의 적응은 이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2) 이주배경 청소년(Youth with immigrant background)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과 그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Youth welfare support act, §18)으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Framework Act of Juveniles, §3(1))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주배경 청소년은 결혼이주민, 귀화자 등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물론, 외국인, 난민,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배경 청소년은 정책이나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한 범주로 분류되고 있다(Sul, 2018a: 309).

주류사회가 포함되는 상호과정이다. 선주민이 제공하는 호의 또는 비호의적 다문화 환경의 맥락에서 이주민의 문화변용(acculturation)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Berry, 1997; Sul, 2018a: 312; Sul & Kim, 2017: 161).

따라서 선주민, 특히 중요한 타인인 또래집단의 다문화수용성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과 학업성취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과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의 관계

청소년의 자아관련 인식과 적응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체계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며 외적지지 체계와 관계가 있다(Kim & Hwang, 2012; Lee, *et. al.*, 2013; Lee, *et. al.*, 2016). 앞서 검토하였듯이 자아개념은 자신이 처한 환경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환경적 강화요인과 중요한 타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Byrne & Shavelson, 1996: 601; Shavelson, *et. al.*, 1997: 410-411). 선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이주민에게 있어서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며(Sul, 2018a), 따라서 이주배경 청소년이 자신을 평가하고 인식하는 방식과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기여할 수 있다. 다문화수용성이 낮은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적대감, 거절, 차별을 경험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Berry, 1997).

따라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신에 대한 인식과 학교적응은 이들이 얼마나 다문화 및 이주민에 대해 호의적인 환경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그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주민에 대한 주류사회의 환경이 우호적이고 평가가 긍정적일 때, 이에 기초하여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면 긍정적 자아개념이 확립된다. 반면,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비우호적인 환경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할 경우 부정적 자아개념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학교부적응의 원인이 된다(Kim, 1997; Rosenberg, 1985).

문제는 한국사회의 다문화와 이주민에 대한 태도나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동안 다문화관련 정책과 교육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 이주민에 대해 보였던 온정주의는 2010년대에는 냉담주의로 변화하였으며(Yoon, 2016), 다문화 관련 부정적 경험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을 저하시키고 있다(Sul, 2018a). 이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인식 및 학교적응, 나아가 사회적응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완화 또는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적 지지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으로,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o & Lee, 2014; Kwak, 2014; Rosenberg, *et. al.*, 1995; Sul & Kim, 2017). 또한 사회적 지지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제공하고, 부정적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거나 부정적 환경으로부터의 영향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Cohen & Hobernman, 1983; Malecki & Demaray, 2002: 2; Sul, 2018a: 311). 이것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주류사회의 비우호적인 환경이 이주배경청소년의 자아개념과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거나 우호적 환경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에 대한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과의 상호작용효과를 가정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데이터와 표본

본 연구에서는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과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of 2013, hereinafter

KELS 2013)의 1~5차년도(2013년~2017년)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³⁾ KELS 2013은 2013년 전국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중에서 층화군집무선추출법(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으로 추출된 학생표본을 바탕으로 구축되었다. 자료는 먼저 전국 5,509개 학교 중에서 242개 학교가 추출되고 다음으로 이들 학교로부터 추출된 7,324명의 표본학생과 표본학생의 학부모, 담임교사와 교과담당교사, 소속 학교를 대상으로 5차년도에 걸쳐 조사된 종단자료이다(KEDI, 2018). 1차년도에 추출된 7,324명 표본 학생 중 남학생 3,623명, 여학생 3,701명 총 7,287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 3학년 이주배경 가정의 청소년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가정, 중국 조선족 가정 등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가정의 자녀 등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다문화가정 학생은 KELS 2013의 1차년도 학부모 설문지를 활용하여 추출하였으며, 총 149명(여학생 73명, 남학생 76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다문화 가정 학생의 KELS 2013 1~5차년도(2013년~2017년) 패널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일반 가정 학생들의 KELS 2013 1~5차년도의 학생설문자료를 함께 활용하였다.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통해 변수의 관계를 설정하고, KELS 2013의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각 변수 및 하위요인들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변수는 1차년도(2013년)를 기준으로 2차에서 5차년도의 문항을 매칭하여 동일한 문항 및 척도로 측정하였다.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

아개념과 학업성취도이다.

첫째, 자아개념은 영역 특정적 자아개념(domain specific self-concept)으로 개념화하고(Rosen, et. al., 2010. 93), KELS 2013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사회, 가족, 신체, 학업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하위영역을 구성하는 문항(5점 척도)들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사회 자아개념(social self-concept)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능력을 말하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나는 단체생활을 잘 한다”,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친구들은 나와 함께 놀기를 좋아한다”, “친구들은 나를 믿는다” 등의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족 자아개념(family self-concept)은 가족과 얼마나 잘 지내는지를 나타내는, “나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행복한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가족들은 나의 고민을 잘 도와준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신다” 등의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신체 자아개념(physical self-concept)은 외모, 건강, 신체조건 등에 대한 느낌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는 나의 얼굴 생김새에 만족한다”, “나는 나의 몸매에 만족한다”, “나는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호감을 주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 “나의 용모는 매력적인 편이다” 등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업 자아개념(academic self-concept)은 학교생활에서의 성공이나 실패와 관련된 개념이다(Bracken, 1992). “나는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에 임한다”, “나는 수업시간에 발표하거나 호명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공부를 한다”, “나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다”의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아개념의 각 하위영역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적일관성 검정결과, 5차년도 기준으로 Cronbach's α 는 사회 자아개념 .913, 가족 자아개념 .950, 신체 자아개념 .871, 학업 자아개념 .913으로 모두 높은 신뢰수준이었다.

3) 원자료는 제12회 한국교육중단연구 학술대회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KEDI)으로부터 획득하였다.

둘째, 또 다른 종속변수인 학업성취는 학교교육의 1차적인 목표이자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이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점수로 측정하였다. 학업성취도 점수는 학년별 학업성취 점수의 변화를 능력수준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능력점사의 수직척도 점수를 활용하였으며, 국어, 영어, 수학 등 세 과목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세 과목 점수 간 내적일관성 검정결과 Cronbach's α 는 .857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주된 독립변수는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multicultural acceptance)과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이다.

첫째,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은 일반가정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나 인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KELS의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관계성에 대한 인식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다양성(diversity)에 대한 인식은 “한국에 사는 외국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학급회장(반장)은 성별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될 수 있다”, “외국에서 온 이주자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는 더욱 풍부해진다”, “우리나라에 살기 위해서 온 외국인들은 자신의 전통이나 생활습관을 버려야 한다(reverse)”, “외국인이 늘어나면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한다(reverse)” 등 문화개방성이나 고정관념 및 차별과 관련한 5개의 문항(5점 척도)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부정적 인식과 관련한 문항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관계성(relationship)에 대한 인식은 다문화 이웃이나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학생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학생과 가장 친한 단짝친구가 될 수

있다”, “학급에 외국에서 학생이 있으면 내가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겠다”, “피부색이나 겉모습이 다른 학생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다”, “우리 학교에 여러 인종과 문화를 지닌 학생들이 들어와 학생들이 다양해지지만 좋겠다” 등 6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각 하위요인들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적일관성 검정결과 Cronbach's α 는, 5차년도를 기준으로 다양성 인식이 .701, 관계성 인식은 .935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한편 선주민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나 인식, 즉 다문화수용성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환경변수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다문화 환경으로서 전체 일반가정 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과,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다문화 환경으로서의 소속 학교 일반가정 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을 모두 고려하였다. 따라서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관계성에 대한 인식은 각 하위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에 대한 일반가정 학생 전체의 평균값과 다문화 가정 학생의 소속 학교 일반가정 학생의 관련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고, 이들 평균값을 다시 평균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다문화 환경의 각 하위지표로 사용하였다.

둘째, 또 다른 중요한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였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인지적 측면으로 측정하였으며,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타인인 교사, 친구,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교사지지, 친구지지, 부모지지의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Malecki, et. al., 2000; Zimet, et. al., 1988; Sul, 2018). 교사지지(teacher social support)는 학교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 선생님들은 “나의 말을 잘 들어 주신다”, “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신다”, “내가 인사를 하면 반갑게 받아주신다”, “나를 자주 칭찬 하신다”,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 등 5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활용하였다. 친구지지(friend social support)는 “내 친구들은 내 의견을 존중해 준다”, “내 친구들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을 털어 놓는다”,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내 친구들에게 나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다”, “내 친구들을 믿는다” 등 친구들과의 관계에 관한 6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부모지 지(parental social support)는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내가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 있게 물어보신다”, “사소한 것도 여쭙어보면 잘 듣고 대답해 주신다”, “취미나 여가활동을 나와 함께 하신다”, “책을 읽고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신다” 등 4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를 높게 인식할수록 점수가 높아지도록 하였다. 각 하위요인들을 구성하는 문항들에 대한 내적일관성 검정결과, 5차년도를 기준으로 Cronbach's α 는 각각 .914, .926, .855로 모두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한편 다문화수용성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하위요인들의 평균값을 전체 사회적 지지(overall social support)의 측정값으로 활용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들 간의 Cronbach's α 는 .699로 허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이주배경 청소년의 특성인 성별 및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학교 특성인 학교 급을 포함하였다. 먼저, 성별은 여학생=0, 남학생=1의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한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경제수준을 활용하였으며, 월평균 가계소득에 1의 값을 더한 후 로그 값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급에 따른 차이, 즉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초등학교=0, 중학교=1의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3. 분석 방법 및 모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환경과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의 중단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중단자료의 분석에 적합한 패널모형을 활용하였다.

패널모형은 일반적인 횡단면분석(cross sectional

data analysis)이나 시계열분석에서 발생하는 통제 불가능한 누락변수(unobservable omitted variables)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분석모형이다 (Min & Choi, 2009: 3). 이러한 패널모형은 누락변수의 오차항의 가정에 따라 고정효과모형(FE: 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E: random effect model)으로 구분된다. 두 모형 중 어느 모형을 선택하느냐는 연구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간불변의 개체특성효과가 독립변수들과 관련이 있는가에 따라 모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비교할 수 있다 (Wooldridge, 2013: 496). 본 연구에서는 FE모형과 RE모형을 차례로 분석하였으며, Hausman 검정을 통해 두 모형을 비교하였다. Hausman 검정결과, FE모형이 RE모형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활용한 패널모형을 일반적인 선형모형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Y_{it} = \beta_0 + \beta_1 X_{it} + \beta_2 M_{it} + \beta_3 C_{it} + \mu_i + e_{it} \quad (1)$$

(단, $i = 1, 2, \dots, N$; $t = 1, 2, \dots, T$; X = 다문화수용성의 벡터; M = 사회적 지지의 벡터; C = 통제변수의 벡터; μ_i =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패널개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오차항; e_{it} = 순수한 오차항)

한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식 [1]의 패널 선형모형을 확장하여 다문화수용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최종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Y_{it} = \beta_0 + \beta_4 X_{it} + \beta_5 M_{it} + \beta_6 X \cdot M_{it} + \beta_7 C_{it} + \mu_i + e_{it} \quad (2)$$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1>과 같다. 자아개념은 하위영역 중 가족 자아개념이 가장 높고 신체

Table 1. Variable description and sample statistics

(t=5)

Variables		Description	Obs	Mean	Std. Dev.	Min	Max	Cronbach' α (2017)
Self-concept	social selfconcept	social self-concept, 1-5 points	700	3.984	0.672	1.4	5	0.913
	family selfconcept	family self-concept, 1-5 points	700	4.068	0.807	1	5	0.950
	physical selfconcept	physical self-concept, 1-5 points	700	3.374	0.836	1	5	0.871
	academic selfconcept	academic self-concept, 1-5 points	700	3.506	0.841	1	5	0.913
score		school achievement	694	202.336	41.635	101.33	334.33	-
Multicultural acceptance	diversity	cultural openness, 1-5 points	698	4.172	0.135	3.185	4.595	0.701
	relationship	relationship with other group, 1-5 points	699	4.105	0.148	3.339	4.589	0.935
Social support	teacher support	social support from teachers, 1-5 points	699	3.704	0.759	1	5	0.914
	friend support	social support from friends, 1-5 points	700	3.714	0.772	1	5	0.926
	parental support	social support from parents, 1-5 point	698	3.222	0.884	1	5	0.855
	social support	overall sub-social support: average of sub social supports(teachers, friends, parents)	700	3.548	0.646	1	5	0.699
male		gender(male=1, female=0)	700	0.507	0.500	0	1	-
house income		monthly household income(log)	698	14.691	1.275	0	17.371	-
middle school		middle school=1, elementary school=0	700	0.577	0.494	0	1	-

자아개념이 가장 낮아,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대체로 가족과 잘 지내는데 있어서 자신의 역할이나 능력을 높게 인식하는 반면, 신체적 외모나 능력은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은 관계정보다는 다양성 지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 반가정 청소년들은 다문화 이웃이나 친구와의 관계보다는 외국인이나 다양한 문화 자체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주배경 청소년

의 사회적 지지는 친구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부모지지는 3.22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주배경 청소년의 부모 지지수준이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학업성취와 각 변수들 간에는 모두 정(+)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개념과 사회적 지지 간에도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수용성은 자아개념의 하위변수 및 학업성취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

Table 2. Correlations matrix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0000											
2	0.4855***	1.0000										
3	0.4813***	0.4660***	1.0000									
4	0.5858***	0.5221***	0.5189***	1.0000								
5	0.1191**	0.1084**	0.0989**	0.1894***	1.0000							
6	0.0893*	0.1094**	0.0589	0.0702	0.1166**	1.0000						
7	0.1052**	0.0223	0.0598	0.0568	0.1762***	0.5495***	1.0000					
8	0.4436***	0.4249***	0.3994***	0.5047***	0.1398***	0.1291***	0.1156**	1.0000				
9	0.6454***	0.4496***	0.3757***	0.4897***	0.1822***	0.0690	0.1491***	0.5740***	1.0000			
10	0.3875***	0.5893***	0.3334***	0.4316***	0.1223**	-0.0115	0.0123	0.3806***	0.4574***	1.0000		
11	0.0225	-0.0435	0.2024***	0.1023**	-0.1333***	-0.0195	-0.0583	0.0173	-0.0914*	0.0138	1.000	
12	0.0963*	0.0590	-0.0045	0.0929*	0.1498***	0.0347	0.0787*	0.0098	0.0714	0.0597	-0.0992**	1.000
13	0.0356	-0.0862*	0.0539	-0.0721	0.3914***	-0.0325	0.1694***	0.0025	0.0688	0.0388	-0.0109	-0.0034

Notes: 1) 1=social selfconcept, 2=family selfconcept, 3=physical selfconcept, 4=academic selfconcept, 5=score, 6=diversity, 7=relationship, 8=teacher support, 9=friend support, 10=parental support, 11=male, 12=house income, 13=middle school; 2) All correlation reported relate to averages for the entire period 2013 to 2017; 3) two tailed, * $p<0.05$, ** $p<0.01$, *** $p<0.001$

났다. 다문화수용성 중 다양성 변수는 사회 자아개념 및 가족자아개념과 정(+)의 관계, 관계성 변수는 사회 자아개념과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성별(남자)은 신체 및 학업 자아개념과는 정(+), 학업성취와 교우지지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가계소득은 사회 및 학업 자아개념, 학업성취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 급은 다문화수용성(관계성)과 학업성취와는 정(+), 가족 자아개념과는 음(-)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Table 2>는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2. 패널모형 분석: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과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의 관계

자아개념의 각 차원 및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패널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 하위변수인 다양성(diversity)과 관계성(relationship) 변수를 투입하고,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의 하위요인으로 교사 지지(teacher support), 교우지지(friend support), 부모지지(parental support)를 투입하였다. 그리고 성별(male), 가계소득(ln_hincome), 그리고 학교 급(middle school)을 통제하여, FE모형과 RE모형을 활용하여 변수들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먼저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FE모형에 대한 F검정과 RE모형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든 모형에 대한 고정효과 F검정결과, 유의수준 0.1%에서 모든 개체(i)에 대해, $u_i=0$ 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Pooled OLS보다 FE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reusch-Pagan LM 검정결과, 유의수준 0.1%에서 $var(u_i)=0$ 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

하여 RE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Pooled OLS보다 RE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FE모형과 RE모형을 비교한 Hausman 검정결과, 오차항과 설명변수 간 상관관계($cov(u_i, X)=0$)에 대한 가정을 기각하여 두 계수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써, RE모형보다 FE모형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종모형으로 FE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첫째, 다문화수용성 변수의 추정계수를 살펴보면, 다문화수용성의 하위변수인 다양성 변수가 이주배경 청소년의 가족 자아개념과 신체 자아개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가정 청소년들의 외국인이나 외국문화에 대한 인식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아개념 형성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성 변수는 자아개념의 모든 하위변수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가정 청소년들의 다문화 친구 및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양성 변수가 가족 자아개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주민의 외국인이나 외국문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이주배경 청소년의 가족관련 자아개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⁴⁾ 이는 일반가정 청소년들이 외국인이나 외국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환경, 즉 다문화환경이 긍정적일수록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가족 관계에서의 자신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류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의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견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신체 자아개념의 분석결과 다양성 변수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주류사회의 다문화

4) 횡단면 분석(2013년 기준)을 통해 추가로 주류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위의 FE모형이 성별(시간불변변수)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성별을 통제한 모형(성별변수 포함)과 통제하지 않은 모형(성별변수 미포함)에 대한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두 모형 모두,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다양성) 변수가 이주배경 청소년의 가족 자아개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Effect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social support on self-concepts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Self-concept								School achievement	
	social self-concept		family self-concept		physical self-concept		academic self-concept		score	
	FE	RE								
diversity	0.144 (0.176)	0.197 (0.167)	0.358* (0.212)	0.502** (0.202)	-0.356* (0.213)	-0.239 (0.206)	-0.174 (0.225)	-0.043 (0.214)	-8.112 (10.176)	-0.067 (9.967)
relationship	-0.038 (0.176)	-0.032 (0.161)	-0.066 (0.212)	-0.208 (0.195)	0.330 (0.212)	0.258 (0.201)	0.104 (0.225)	0.051 (0.207)	46.773*** (10.171)	37.808*** (9.790)
teacher support	0.111*** (0.035)	0.095*** (0.031)	0.109*** (0.042)	0.140*** (0.038)	0.130*** (0.042)	0.164*** (0.039)	0.186*** (0.044)	0.243*** (0.040)	-1.138 (2.012)	0.212 (1.920)
friend support	0.280*** (0.036)	0.393*** (0.032)	0.076* (0.043)	0.132*** (0.039)	0.150*** (0.043)	0.177*** (0.041)	0.190*** (0.046)	0.239*** (0.042)	2.040 (2.061)	2.840 (1.971)
parental support	0.044 (0.030)	0.077*** (0.026)	0.240*** (0.036)	0.351*** (0.031)	0.073** (0.036)	0.106*** (0.033)	0.100** (0.039)	0.161*** (0.033)	0.382 (1.743)	1.211 (1.616)
male	-	0.082 (0.053)	-	-0.066 (0.068)	-	0.357*** (0.093)	-	0.187** (0.077)	-	-9.426* (4.902)
house income	-0.016 (0.018)	0.007 (0.017)	0.019 (0.022)	0.016 (0.020)	-0.014 (0.022)	-0.015 (0.021)	0.031 (0.023)	0.043** (0.022)	1.029 (1.040)	1.729* (1.007)
middle school	0.022 (0.035)	0.005 (0.035)	-0.180*** (0.042)	-0.181*** (0.042)	0.039 (0.042)	0.042 (0.042)	-0.169*** (0.045)	-0.171*** (0.044)	29.256*** (2.021)	29.808*** (2.018)
Constant	2.169*** (0.797)	1.077 (0.699)	1.206 (0.960)	0.581 (0.851)	2.408** (0.963)	1.710* (0.896)	1.727* (1.019)	0.546 (0.910)	7.639 (45.957)	-5.566 (43.619)
Within R^2	0.192	0.187	0.151	0.147	0.095	0.093	0.144	0.141	0.368	0.365
Between R^2	0.601	0.636	0.615	0.630	0.274	0.343	0.528	0.548	0.058	0.114
Overall R^2	0.422	0.440	0.419	0.430	0.201	0.253	0.355	0.377	0.175	0.205
rho(σ)	0.455	0.250	0.485	0.290	0.590	0.496	0.482	0.335	0.632	0.555
Model test	$\chi^2(7)=$	$\chi^2(1)=$								
FE: hausman test	65.63,	86.11,	50.87,	76.87,	35.30,	309.85	28.17,	132.46,	33.48,	384.50,
RE: POLS relevance test	Prob.> $\chi^2=$ 0.0000	Prob.> $\chi^2=$ 0.0002	Prob.> $\chi^2=$ 0.0000	Prob.> $\chi^2=$ 0.0000	Prob.> $\chi^2=$ 0.0000					
No. of groups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No. of obs.	694	694	694	694	694	694	694	694	689	689

Notes: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Hausman test for the null hypothesis that difference in coefficients is not systematic (i.e., the coefficients are equal); 3) POLS test indicates Breusch and Pagan Lagrangian multiplier test for random effects, judging whether or not to reject the null hypothesis that there is a common intercept(i.e., pooled OLS is appropriate); 4) *** $p < 0.01$; ** $p < 0.05$; * $p < 0.1$.

수용성이 높을수록 이주민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FE모형 분석결과, 다문화수용성(다양성)은 유의수준 10%에서 부(-)의 유의미한 계수 값을 보여주고 있어, 선주민의 외국인이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이주배경 청소년의 신체관련 자아개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일반 청소년의 외국인이나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주배경 청소년으로 하여금 오히려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일반 청소년들의 관계성 인식수준에 따른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관련 자아개념과 학업 자아개념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다문화수용성의 하위변수 중 관계성변수가 학업성취도에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가정 청소년들의 다문화 관계성 인식이 높을수록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다문화

수용성 중 다양성 지표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가정 청소년들이 다문화 친구나 다문화 이웃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환경일수록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보다는 직접적으로 이주배경 청소년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학교환경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자아개념에 대체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주배경 청소년이 사회적 지지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아개념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인 교사지지와 친구지지는 사회, 가족, 신체, 학업의 모든 하위 자아개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지지는 FE모형의 추정결과, 가족, 신체, 학업 자아개념에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 자아개념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배경 청소년이 교사, 친구, 그리고 부모의 지지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가족, 신체, 학업 관련 자아개념을 높게 인식하지만, 사회 자아개념의 경우 부모보다는 학교생활에서의 중요한 타인인 교사와 친구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통제변수의 추정계수를 살펴보면, 가계소득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학업성취도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에 따른 차이는 가족 자아개념과 학업 자아개념에 음(-)의 영향을, 학업성취도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시기에 자아개념이 감소하며, 반면 학업성취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RE모형을 통해 성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신체적 자아개념과 학업 자아개념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이었으며, 학업성취도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상호작용효과 분석: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앞서 FE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가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다양성 및 관계성과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식 [2] 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교사, 친구, 부모 등 3개 하위요인들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자아개념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는 다문화수용성 변수 중 다양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였으며,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관계성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였다. 상호작용항과 이를 구성하는 변수 간 상관관계가 0.98이상으로 변수 간 다중공선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 지지, 다문화수용성의 다양성 및 관계성 변수는 각각 연도별로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한 값을 사용하였다. 상호작용효과의 추정결과, 모든 모형에 대한 Hausman test에서 H_0 를 기각하여 FE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는 상호작용효과의 추정결과이다.

첫째, 사회 자아개념과 학업 자아개념에 대한 다양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앞서 FE모형에 대한 분석에서 다양성 변수의 유의미한 영향이 발견되었던 가족 자아개념과 신체 자아개념에서는 다양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Table 4>에서 보듯이 상호작용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에서 사회적 지지는 사회 자아개념과 학업 자아개념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다양성은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에서는 사회 자아개념에 대해 유의수준 10%에서 다문화수용성(다양성)과 사회적 지지의 부(-)의 상호작용효과가, 그리고 학업 자아개념에 대해서는 정(+)의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증가할수록, 선주민의 문

Table 4. Interaction effect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social support on self-concepts and school achievement

Variables	social self-concept		academic self-concept		school adjustment (score)	
	FE	Interaction	FE	Interaction	FE	Interaction
diversity(D)	0.285 (0.180)	0.048 (0.225)	0.139 (0.220)	0.453 (0.276)	9.157 (10.192)	10.055 (10.182)
relationship(R)	0.151 (0.173)	0.165 (0.173)	0.211 (0.213)	0.194 (0.212)	8.514 (10.545)	17.418 (11.598)
social support(S)	0.343*** (0.040)	0.374*** (0.044)	0.433*** (0.049)	0.391*** (0.053)	-2.679 (2.295)	-2.887 (2.293)
D*S		-0.429* (0.246)		0.566* (0.301)		-
R*S		-		-		21.327* (11.688)
house income	-0.011 (0.019)	-0.009 (0.019)	0.035 (0.023)	0.033 (0.023)	1.346 (1.053)	1.275 (1.052)
middle school	0.154*** (0.040)	0.153*** (0.039)	-0.025 (0.048)	-0.024 (0.048)	31.447*** (2.030)	31.613*** (2.027)
constant	3.574*** (0.734)	3.508*** (0.734)	2.315** (0.900)	2.402*** (0.899)	125.101*** (46.198)	122.050*** (46.129)
R-squared	0.130	0.135	0.146	0.152	0.343	0.347
No. of groups	148	148	148	148	148	148
No. of obs.	697	697	697	697	692	692

Notes: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In self-concept(social & study) models, S & D are mean-centered variables, In school adjustment(score) model, S & R are mean-centered variables; 3) *** $p < 0.01$, ** $p < 0.05$, * $p < 0.10$.

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는 반면, 학업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학업성취도에 대한 다문화 관계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었다. 변수 통합 및 평균중심화된 변수 값을 투입한 결과, 앞서 분석결과와는 달리, 상호작용항이 포함되지 않은 모형에서는 다문화수용성(관계성)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사라졌다. 그러나 상호작용모형에서는 유의수준 10%에서 사회적 지지와 관계성의 유의미한 정(+)의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 수준이 증가할수록 일반가정 청소년들의 다문화 이웃이나 친구에 대한 인식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증가한다.

이처럼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도에 대한 환경으로서의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과 이

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었다. 아래에서는 상호작용효과, 즉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해석을 보다 명료하게 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다른 변수들의 값을 평균에 고정한 후 다문화수용성(다양성)의 효과를 도식화하였다.

<Figure 1>에서 왼쪽은 부(-)의 상호작용을 도식화한 것으로,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다문화수용성(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른 사회 자아개념의 변화의 차이를 보여준다. 반면, 오른쪽은 정(+)의 상호작용을 도식화한 것으로, 학업 자아개념의 차이를 보여준다.⁵⁾

먼저,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실선)에서는 다문화수용성(다양성)의 증가에 따른 사회 자아개념의 변화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반

5) 학업성취도 모형에서의 정(+)의 상호작용효과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식화는 생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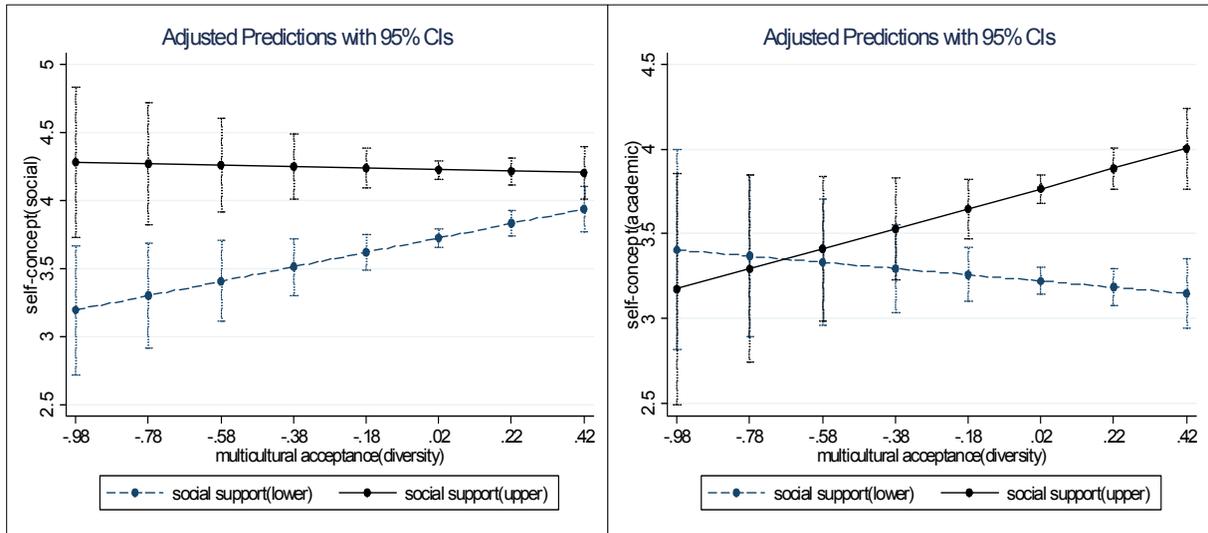


Figure 1. Interaction effects between diversity and social support

면,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점선)의 경우 다문화수용성(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사회 자아개념도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 경우 선주민의 다문화환경의 변화가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 자아개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하지만,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은 경우 다문화환경의 변화가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아개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이주 배경청소년은 사회 관련 자아개념의 발달에 주류사회의 다문화 환경의 영향을 덜 받지만,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경우 사회 자아개념을 발달시키는데 주류사회의 다문화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주류사회의 다문화수용성(다양성)이 사회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사회적 지지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오른쪽 그림의 정(+)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해석이다. 그림에서 신뢰구간이 겹치지 않아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실선)과 낮은 집단(점선)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부분을 보면,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에서는 다문화수용성(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학업 자아개념도 크게 증가하고,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에서는 학업 자아개념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선주민

의 다문화수용성(다양성)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수용성(다양성)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난 학업성취도의 경우,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수용성(관계성)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경우 일반청소년들이 다문화 이웃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학업성취 수준도 증가하지만, 사회적 지지수준이 낮은 경우, 주류사회의 인식이 개선되더라도 이에 따른 학업성취 수준의 향상은 기대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이주민 및 이주배경 청소년 정책에의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KELS 2013 1~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FE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주민의 다문화인식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전의 주요 영향 요인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의 하위요인 중 다양성 변수가 가족 자아개념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신체 자아개념에는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가정 청소년의 외국인이나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이주배경 청소년은 가족과 관련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며, 반면에 자신의 신체와 관련하여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둘째, FE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 중 관계성 변수가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가정 청소년이 다문화 이웃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경험적 증거를 발견하였다. 이처럼 다문화수용성, 특히 관계성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증거의 발견은 교육적,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FE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사회적 지지는 전반적으로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아개념에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나, 학업성취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개념도 높으며, 사회적 지지는 자아개념 향상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상호작용효과 분석결과, 사회적 지지의 일부 조절효과, 즉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도에 대한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의 영향력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로 사회 자아개념에 대해서는 다문화 다양성과 사회적 지지의 정(+)의 상호작용효과가, 학업 자아개념에 대해서는 다문화 다양성과 사회적 지지의 부(-)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에 대해서는 다문화 관계성과 사회적 지지의 정(+)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 수준이 증가할수록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이 학업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증가하고, 사회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의 증가는 둔화된다. 이는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의 변화가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와 발견을 바탕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이 이주민 및 이주배경 청소년 관련 교육 및 정책적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인식 및 학교적응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선주민에 대한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및 교육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이 크게 제고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나아가 최근 다문화교육 및 기존 다문화정책에 대한 비판과 피로감이 노출되고 있다(Han, 2012; Sul, 2018a; Sul, 2018b). 2000년대 초 이주민에 대해 보였던 온정주의는 2010년대에는 냉담주의로 변화하였으며(Yoon, 2016), 최근에는 “다문화 혐오증”이나 “반이주민”정서가 확산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Sul, 2018b). ‘차이의 인정’이나 ‘관용’을 강조하던 기존의 계몽적 관점에서의 인식개선 정책에서 사회통합적 관점에서의 관련 교육 및 정책의 수정과 갈등관리의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주류사회의 비우호적인 환경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우호적 환경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체계의 확장 및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언어나 문화적 환경으로 인한 사회적 지지의 약화와 사회적 편견 및 차별로 인해 자신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기 쉽고 학교성취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사회적 지지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인식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주류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신에 대한 인식이거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체계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 자아개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가져옴으로써,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자신감과 실질적인 학업성취에도 기여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의 약화로 인한 부정적 자아인식과 학교부적응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 친구, 부모 및 가족 등 비공식적 지지체계의 확대를 위한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학교, 지역사회, 정부, 민간단체 등 공식적인 지지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환경적 요인으로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객관적인 측정지표를 활용함으로써 다문화 환경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형성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환경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실제적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주배경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인식 및 학교적응 제고에는 객관적 환경뿐만 아니라 이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문화 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고려함으로써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고 학교 및 사회 부적응을 해소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

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8029397). 논문의 초고는 제12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2018.11.30.)에서 발표하였음.

References

- Ahn, Sang Su, Moo Suk Min, and Yi Seon Kim. 2012. *The Study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Korea*. Seoul, South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Bates, L., T. Luster, and M. Vandenberg. 2000. Factors Related to Social Competence in Elementary School among Children of Adolescent Mothe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s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in New Orleans, L. A.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 Byrne, B. M. and R. J. Shavelson. 1996. On the Structure of Social Self-concept for Pre-, Early, and Late Adolescents: A Test of the Shavelson, Hubner, and Stanton(1976)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3): 599-613.
- Cohen, S. and H. Hoberman.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Framework Act of Juveniles. Act No. 15208, Dec. 12, 2017. Partial Amendment (Enforcement June 13, 2018).
- Hammer, M. R., M. J. Bennett and R. Wiseman 2003. Measur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The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7: 421-443
- Han, Geon Soo. Multiculturephobia and the Discourse of Failure of Multiculturalism in Korea: Which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ism and Human*. 1(1): 113-143.
- Harter, S. 2006. The Self. W. Damon, R. M. Lerner (series eds.), and N. Eisenberg(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 ed. New York: Wiley.
- Hur, Yoon Mi. 2005.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Self-concept among Children: A Twin Study.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9(2): 91-102.
- Hwang, Jung Mee. 2010. Analysi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New Politics of Membership.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55(4): 152-184.
- Hwang, Jung Mee, Yi Seon Kim, Myoung Jin Lee, Hyun Choe, and D. J. Lee. 2007. *Research Study on the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Korea Society*.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Hyun, Ju, Yang Boon Kim, Han Gu Ryu, Hyun Jung Park, and Tae Eun Kim. 2005. *Development of KEDI Comprehensive Test*.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KEDI).
- Jang, Mi and Jong Suerl Chun. 2013. Factors Affecting Adjustment to School Life amo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 Comparison with Children from Korean Families. *Family and Culture*. 25(4): 182-213.
- Jin, Byung Kyu and Hyo Sun Park. 2018. A Study on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Korean Soldiers. *Crisisonomy*. 14(4): 133-150.
- Kelly, C. and J. Meyers. 1995. *The Cross-cultural Adaptability Inventory Manual*. Minneapolis, MN: National Computer System.
- Kim, Hai Sook. 2007. The Effect of Values on Prejudice toward Minority Groups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1(4): 91-104.
- Kim, Kyung Keu and Yeo Jung Hwang. 2012. Determinant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9(1): 87-117.
- Kim, Shin Young, Ji Hye Lim, Sang Wook Kim, Seung Ho Park, Seong Ryeol Yu, Ji Young Choi, K. Y. Lee. 2006. *Korea Youth Development Indicators Survey I: The Resulting Partial Verification Measures*. Seoul: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 Kim, Soon Hye 1997.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concept and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and School Achievement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1(2): 21-44.
- Kim, Yang Boon, Sung Sik Kim, Sung Ho Park, Byeong Cheol Min, Sang Jin Kang, Hyun Chul Kim, and Jong Ho Shin. 2006. *Kore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2005(II)*.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KEDI).
- Ko, Eun Kyo and Seung Hyun Lee. 2014. Social Support and Self Concept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Peer Relationship.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8: 1-29.
-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KEDI). 2018. *Explanation Report for the 12th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2013*. KEDI.
-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MOJ). 2019. *Monthly Immigration Statistics, March 2019*. Korea Immigration Service, MOJ.
- Kwak, Soo Ran. 2014. Effects of Social Relation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on Self-concept and School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4(2): 1-24.
- Ladd, G., B. Kochenderfer, and C. Coleman. 1997. Classroom Peer Acceptance, Friendship, and Victimization: Distinct Relational Systems that Contribute Uniquely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8(6): 1181-1197.
- Lee, Gun Nam, Young Eun Kim, and Ki Young Lee. 2013. The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Prim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6(3): 1-14.
- Lee, Hee Sook, Jae Young Chung, Su Yeon Jang, Jae Ryeong Kim. 2017. An Analysis Factors Affec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Level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Studies on Korean Youth*. 28(2): 225-248.
- Lee, Myoung Jin, Yu Jung Choi, and Set Byol Choi. 2010. Multi-cultural Society and Social Distance for Foreigners in Korea Society. *Survey Research*. 11(1): 63-85.
- Lee, Tae Ho, Seok Young Lee, and Yoon Sun Han. 2016.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Teacher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mong Adolescents in Korea: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2(1): 65-85.
- Lennon, J. M. 2010. Self-efficacy. J. A. Rosen, E. J. Glennie, B. W. Dalton, J. M. Lennon, and R. N. Bozick. *Noncognitive Skills in the Classroom: New Perspectives on Educational*

- Research. Research Triangle Park, NC: RTI International.
- Lynch, E.W. 1992. Developing Cross-cultural Competence. E.W. Lynch, M. J. Hanson. eds. *A Guide for Working with Young Children and their Families*. Baltimore: Paul H. Brooks.
- Malecki, C. K., M. K. Demaray, and S. N. Elliott. 2000. *The Child and Adolescent Social Support Scale*. DeKalb, IL: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 Malecki, C. K. and M. K. Demaray. 2002. Measuring Perceived Social Support: Development of the Child and Adolescent Social Support Scale. *Psychology in the Schools*. 39: 1-18.
- Marsh, H. W. 1990. A Multidimensional, Hierarchical Model of Self-concept: Theoretical and Empirical Justificatio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2): 77-172.
- Marsh, H. W., R. G. Craven, and R. Debus. 1991. Self-concept of Young Children 5 to 8 Years of Age: Measurement and Multidimensional Structur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3): 377-392.
- Min, In Sik and Pil Sun Choi. 2012. *STATA Panel Data Analysis*. Seoul: The Korean Association of Stata.
- Ministry of Education(MOE). 2017 *Project Proposal on Education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 Students*. Press Release. 2017.3.24.
- Ministry of Education(MOE). 2019. *2019 Support Pla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Education Opportunity Promotion Division, MOE.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MOIS). 2018. *Statistics on Foreign Residents by Local Government 2017*. Local Autonomy Policy Bureau, MOIS.
- Min, Moo Suk, Sang Su Ahn, Yi Seon Kim, Bo Young Sun, and Myoung Jin Lee. 2012. *Research and Study on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by Adolescents*.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Oh, Jung A and Yeong Hee Kim. 2015. The Effects of Inter-parental Conflict and Parental Behavior on Self-perception and School Adjustment: Focused on Gender Difference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6): 205-231.
- Park, Kei Ran and Ji Min Lee. 2010.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Influencing Adjustment to School Life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Daegu, Gyeongbuk Area.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9(6): 981-991.
- Park, Sun Hee. 2009. The Characteristics and Social Adjustment i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9: 125-154.
- Rosenberg, M. 198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R. L. Leahy. e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Orlando, FL: Academic Press.
- Rosenberg, M., C. Schooler, C. Schoenbach, and F. Resenverg. 1995. Global Self-esteem and Specific Self-esteem: Different Concepts, Different Outcom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141-156.
- Ryu, Sang-Hee, Eun Joo Lee, and Yun Kyoung Park. 2016. A Study of Perceived Self-concept, Family Life, and School Life of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2(5): 355-379.
- Sercu, L. 2004. Assessing Intercultural Competence: A Framework for Systematic Test Development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d Beyond. *Intercultural Education*. 15(1): 73-90.
- Shavelson, R. J., J. J. Hubner, and G. C. Stanton. 1976. Self-concept: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6(3): 407-441.
- Song, In Sup and Hee Hyun Lee. 2005. A Study on the Construct Validation of Self-concept. *Journal of Education Evaluation*. 18(3): 75-96.
- Sul, Jin Bae. 2018a. Social Support,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with Migrant and Domestic Backgrounds in South Korea: Towards Conflict Resolution and Social Integration.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19(1): 307-331.
- Sul, Jin Bae. 2018b. Multiculturalization and Social Integration in Koren Society. *Social & Cultural Conflict and Integration in Korea*. 83-106. 2018 Founding Ideology Conference of Sun Moon University.
- Sul, Jin Bae and So Hee Kim. 2017.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n School Adjustment by Multicultural Background: Testing Mediation Effects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s.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18(1): 155-180.
- Thoits, P. A. 1995.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rocesses: Where are We? What Nex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 Behavior*. 35: 53-57.
- Van den Bergh, B. and L. De Rycke. 2003. Measuring the Multidimensional Self-concept and Global Self-worth of 6- to 8-year-old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4(2): 201-225.
- Wooldridge, Jeffrey M. 2013.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5th(ed.). Mason, OH: South-Western, Cengage Learning.
- Yang, Kye Min. 2009. The Influence of Korean Ethnic Identity upon the Multicultural Receptiveness of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0(4): 387-421.
- Youn, Bo Ra and Kyung Keun Kim. 2017.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and School Adjustment: A Latent Growth Modeling Approach.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3(1): 205-230.
- Yoon, In Jin. 2016.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Koreans' Perceptions of Multicultural Minorities. *Journal of Diaspora Studies*. 10(1): 125-154.
- Yoon, In Jin and Young Ho Song. 2011. South Koreans' Perceptions of National Identity and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23(1): 143-192.
- Youth Welfare Support Act. Act No.15988, Dec. 18, 2018. Partial Amendment (Enforcement Mar. 19, 2019.)
- Zimet, G. D., N. W. Dahlem, S. G. Zimet, and G. K. Farley.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 Assessment*. 52: 30-41.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고은교, 이승현. 2014.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8: 1-29.
- 곽수란. 2014.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관계가 자아개념 및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4(2): 1-24.
- 교육부. 2019.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교육기획보장*과.
- 교육부. 2017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 *보도자료* 2017.3.24.
- 김경근, 황여정. 2012. 초중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교육*. 39(1): 87-117.
- 김순혜. 1997. 고등학생의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 성향의 하위요인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1(2): 21-44.
-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 2006.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 결과부문 측정지표 검증.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양분, 김성식, 박성호, 민병철, 강상진, 김현철, 신종호. 2006. 한국교육중단연구 2005(II). 한국교육개발원.
- 김혜숙. 2007.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91-104.
- 류상희, 이은주, 박윤경. 2016.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인식,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 조사. *교육문화연구*. 22(5): 355-379.
- 민무숙, 안상수, 김이선, 선보영, 이명진. 2012.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민인식, 최필선. 2009.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서울: 한국 STATA학회.
- 박계란, 이지민. 2010.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구조분석: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9(6): 981-991.
- 박순희. 2009.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과 사회적응. *한국아동복지학*. 29: 125-154.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9년 3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설진배. 2018a.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배경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다문화수용성,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평화학연구*. 19(1): 307-331.
- 설진배. 2018b. 한국사회의 다문화화와 사회통합. 한국의 사회·문화적 갈등과 통합의 전망. 83-106. 선문대학교 2018 건학이념 학술대회.
- 설진배, 김소희. 2017. 다문화 배경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다문화 수용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매개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평화학연구*. 18(1):155-180.
- 송미영. 2010. 한국의 다문화의식: 다문화 수용성의 원인 분석.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41: 74-194.
- 송인섭, 이희현. 2005. 자아개념검사의 구인타당화 연구. *교육평가연구*. 18(3): 75-96.
- 안상수, 민무숙, 김이선. 2012.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양계민. 2009.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0(4): 387-422.

- 윤인진. 2016.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국민의식의 지형과 변화. 디아스포라연구. 10(1): 125-154.
- 윤인진, 송영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23(1): 143-192.
- 연보라, 김경근. 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탈북청소년의 사회자본과 학교적응 간 종단관계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3(1): 205-230.
- 오정아, 김영희. 2015. 부모의 갈등과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인식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남녀 청소년의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6): 205-231.
- 이건남, 김영은, 이기용. 2013. 초등학교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6(3): 1-14.
- 이명진, 최유정, 최셋별. 2010.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조사연구. 11(1): 63-85.
- 이택호, 이석영, 한운선. 2016. 교우관계와 교사관계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한국심리학회: 문화 및 사회문제. 22(1): 65-85.
- 이희숙, 정제영, 장수연, 장선희, 김재령. 2017. 초등학교의 다문화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8(2): 225-248.
- 장미, 전종철. 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가정 아동과의 비교. 가족과 문학. 25(4): 182-213.
- 진병규, 박효선. 2018. 한국군 장병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Crisisonomy. 14(4): 133-150.
- 청소년기본법. 법률 제15208호, 2017.12.12. 일부개정(2018.6.13. 시행).
- 청소년복지지원법. 법률 제15988호, 2018.12.18. 일부개정(2019.3.19. 시행).
- 황건수. 2012.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혐오증과 실패론: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와 인간. 1(1): 113-143.
- 한국교육개발원. 2018. 제12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데이터 설명회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 행정안전부. 2018.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 허윤미. 2005.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유전과 환경의 영향: 쌍둥이 연구. 사회심리학회지. 19(2): 91-102.
- 현주, 김양분, 류한구, 박현정, 김태은. 2005. KEDI 종합검사도구 개발 연구(I): 예비검사 개발, 실시 및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황정미. 2010.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아세아연구. 55(4): 152-184.
-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Received: May 29, 2019 / Revised: Jul. 11, 2019 / Accepted: Jul. 14, 2019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과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의 관계분석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

국문초록 본 연구는 KELS 2013의 1-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와 다문화수용성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다양성)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가족 자아개념에는 정(+), 신체 자아개념에는 부(-)의 영향을 미쳐, 주류사회가 문화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환경일수록, 이주배경 청소년의 가족 자아개념은 증가하고, 신체 자아개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관계성)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가정 청소년들이 다문화 친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환경일수록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상호작용의 일부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와 발견은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 제고 및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이주배경 청소년, 선주민의 다문화수용성, 자아개념, 사회적 지지, 패널모형

Profiles **Jin Bae Sul** : She received her Ph.D. from Yonsei University, Korea in 2011. She is a research professor of the Institute of Public Affairs at Yonsei University. Her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is public management, organizational studies, and social integration policy. She has published 27 articles in journals(jbsul@yonsei.ac.kr).

Eun Kook Lee : He is a professor of Public Administration at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s, Yonsei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His research focuses on regulatory policy,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and statistics for public administration(eklee@yonsei.ac.kr).

Ji Hae Kim : She is a Ph.D student at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 Sungkyunkwan University. Her subjects of interest are government regulation, policy analysis, legislation and policies(ccc0546@gmail.com).